

사업체 재무정보 조사방법 비교

양 수 경*

I. 머리말

일반적으로 사업체조사는 가구조사나 개인조사에 비해 조사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선 사업체조사는 대개의 경우, 한 명의 담당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차원의 전문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러한 정보 중 상당수가 기업의 영업활동상의 비밀이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많아 답변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기업의 현재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재무정보의 경우 응답업체의 입장에서는 가장 응답을 꺼리는 부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데이터의 재무정보를 차용하기도 하는데, 자체조사의 재무정보 결과와 다른 데이터들의 재무정보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도 적지 않아 일관된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WPS 2005(Workplace Panel Survey 2005, 사업체패널조사 2005)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재무조사 정보를 취합·검토하고 공개하는 과정은 조사과정을 통틀어 가장 복잡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다. 특히 재무정보는 기업성과를 가름할 수 있는 변수들로 노동경제학이나 인적자원관리의 영역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다루어지는 핵심변수여서 더욱 그러했다.

이 글의 목적은 WPS 2005와 외국의 사업체조사(WERS, WES), 그리고 한국의 다른 사업체조사(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에서 재무정보가 어떠한 수준으로 어떻게 수집되었으며, 그 데이터의 질은 어떤 수준인가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무정보 수집과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현재의 조건에서 최대한 일관되고,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skyang@kli.re.kr).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 구축의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재무조사 방법 비교

1. WPS 2005의 재무조사 방법

WPS 2005의 재무조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사전 연락시 재무담당자가 파악된 경우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재무담당자에게 직접 재무 설문을 전달하여 응답을 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 연락시 재무담당자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로, 본 조사 진행시 인사담당자에게 재무담당자를 소개받아 설문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사실상 WPS 2005의 재무조사는 주로 전자의 방법, 즉 면접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재무담당자를 소개받은 후 즉석에서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WPS 2005에서 조사하고 있는 재무 항목은 <표 1>과 같다. 재무조사 항목 중 자산, 부채,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계정을 그대로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총인건비,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법정복리비, 복리후생비(법정복리비 제외), 법정복리비와 복리후생비

<표 1> WPS 2005와 한국신용평가 자료의 재무조사 항목 비교

WPS 2005 재무조사 항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 - 부채총액 	대차대조표상의 항목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계산서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 매출원가 -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손익계산서상의 항목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인건비 - 교육훈련비 - 연구개발비 - 법정복리비 - 복리후생비(법정복리비 제외) - 법정복리비와 복리후생비의 합 	제조원가명세서 및 당기 무형자산의 증가로 인식된 개발비(해당 무형자산상각비 상각전 금액)상의 금액도 포함

의 합 항목은 손익계산서상의 계정뿐 아니라 제조원가명세서 및 당기 무형자산의 증가로 인식된 개발비(해당 무형자산상각비 상각전 금액)상의 금액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재무 항목 응답자는 손익계산서뿐 아니라 제조원가명세서의 항목을 파악하여 새로 계산한 값을 기입하게 된다.

예를 들어 총인건비의 경우, ①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의 인건비로 비용처리되고, ②(제조회사, 건설회사의 경우) 제조 또는 건설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제조원가명세서를 통해서 비용처리되며, ③ 개발비로 인정되는 경우(효과가 장기인 경우) 일단 개발비라는 대차대조표 자산 항목으로 인식하였다가 해당 상각기간에 따라 비용처리(감가상각)된다. WPS 2005에서 묻고 있는 총인건비는 위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합한 값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에 보고하는 감사보고서에 있는 값보다 실제에 가까운 값을 받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다.

다음으로 WPS 2005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응답률은 평균 96.3%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25인 이상의 경우 95% 이상이 응답해 주었고, 10~24인 규모의 경우 응답률은 71.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률은 단지 재무관련 응답지에 한 항목 이상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실제 응답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신뢰할 수 없는 응답값이나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3>은 사업장 형태(기업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 즉 다수사업장의 경우인지, 아니면 기업 자체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즉 단일사업장인지의 여부)에 따른 응답현황이 나타나 있다.

다수사업장인 경우, 대다수가 사업체단위의 값이 아니라 기업체단위의 값으로 응답을 하였다. 이는 실제 조사과정에서 사업체단위 재무정보들을 취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인데, 이는 몇몇 지점에서 데이터상의 한계를 발생시킨다. 우선 다른 설문항목은 사업체단위로 조사를 하였으나 재무정보는 기업체단위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표 2> WPS 2005 재무조사의 규모별 응답률

(단위: 개, %)

조사된 사업체수(A)	총 1,905	근로자수							
		10~ 24인	25~ 49인	50~ 99인	100~ 199인	200~ 499인	500~ 999인	1000~ 1,999인	2,000인 이상
		7	338	361	351	467	211	107	63
재무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수(C)	1,835	5	324	346	341	454	203	101	61
$\frac{C \times 100}{A}$	96.3	71.4	95.9	95.8	97.2	97.2	96.2	94.4	96.8

〈표 3〉 WPS 2005의 사업장 형태별 응답단위 현황

(단위 : 개, %)

	기 타	사업체단위로 응답	기업체단위로 응답	전 체
다수사업장	7 (2.2)	143 (18.6)	617 (80.4)	767 (100.0)
단일사업장	5 (0.5)	340 (31.8)	723 (67.7)	1,068 (100.0)
전 체	12 (1.9)	483 (26.3)	1,340 (73.0)	1,835 (100.0)

주 : 이는 조사시 실제 받은 재무정보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WPS 2005의 0.9버전의 재무정보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WPS 2005의 0.9버전 데이터는 사후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데이터를 비교하여 Cleaning을 하였음).

시 사업체 1인당 매출액 등을 구할 수 없어 사업체의 성과를 올바르게 추정해내기 어렵게 된다.

또한 WPS 2005의 총인건비,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법정복리비, 복리후생비(법정복리비 제외)를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재무자료,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와 상호 비교해 본 결과, 재무조사 항목 설계시의 의도와는 달리 제조원가명세서 및 당기 무형자산의 증가로 인식된 개발비(해당 무형자산상각비 상각전 금액)상의 금액을 포함한 실제 값을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 총인건비,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법정복리비, 복리후생비(법정복리비 제외)에 제조원가명세서 및 당기 무형자산의 증가로 인식된 개발비(해당 무형자산상각비 상각전 금액)상의 금액이 포함됨에 따라 개발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었다.

2. 외국의 사업체조사와의 비교

가. WERS(Workplace Employment Relations Survey) : 영국¹⁾

WERS 2004의 재무조사 방법은 본 조사에 응하기로 한 사업체에게 사전에 미리 설문지를 우편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재무조사표는 종이설문지 형태로 되어 있으며, 경영진 설문을 완료 후 응답해야 할 사업장 내 재무담당자에게 제공된다. WERS 2004에서 재무조사 진행은 경영진 설문을 응답한 사람(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의 동

1) WERS는 영국의 사업체패널조사로서 조사주기는 대략 4-5년으로 일정치 않으며, 사업체조사뿐 아니라 근로자조사도 함께 횡단면 및 패널조사로 나뉘어 실시하고 있다. WPS 2005의 재무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설문항목들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하다.

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본인이 스스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재무조사표에 응답할 수 있는 재무담당자에게 넘기게 된다. 이 방법은 WPS 2005 재무조사시에 그대로 차용하였다.

WERS 2004는 <표 4>와 같이 크게 7가지 재무항목, 즉 총매출액, 근로자수, 자산, 자본지출, 상품·재료·서비스 구입액, 고용비용, 연구개발비를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의 수는 1인당 매출액 등을 계산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WPS 2005에서 1인당 매출액 등을 구하기 위해서는 2005년 12월 말 기준의 근로자수를 사용했는데, WERS는 회계기간 동안의 근로자수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수치를 구할 수 있다. 이는 향후 WPS 2007에서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WERS 2004 재무조사의 응답률은 <표 5>와 같다. 조사에 응하기로 한 사업체의 총수는 2,295개이며, 이 중 재무조사표가 전달된 사업체수는 2,076개로 본 조사에 응하기로 한 사업체 중 재무조사의 응답에 동의한 사업체 비율은 90.5%이다. 본 조사 진행에 동의한 사업체 중 재무정보 응답률은 46.4%이며, 재무조사표가 전달된 사업체 중 재무정보 응답률은 51.5%이다. 응답률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5~9인 사업체와 2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 중 사업체근로자의 수가 10~24인인 사업체의 재무정보 응답률은 33.1%로 가장 낮았고, 2,000인 이상인 사업체의 응답률은 59.3%로 가장 높았다.

<표 4> WERS 2004의 재무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매출액(Turnover) ※ VAT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Employment) ※ 해당기간의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제 근로자수(Number of full-time employees) - 시간제 근로자수(Number of part-time employ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Value of ass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 건물 총액(Total value of owned buildings) - 임대 건물 총액(Total value of rented/leased buildings) - 기타 소유 자산 총액(Total value of other owned assets) - 기타 임대 자산 총액(Total value of other rented/leased ass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 총비용(Total cost of acquisitions) - 매각 총수익(Total proceeds from dispos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원재료·서비스 구입액(Purchases of goods, materials and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비용(Employment cos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Research and Development)

〈표 5〉 WERS 2004 재무조사의 규모별 응답률

(단위: 개, %)

조사된 사업체수(A)	총 2,295	근로자수								
		5~9인	10~24 인	25~49 인	50~99 인	100~ 199인	200~ 499인	500~ 999인	1000~ 1,999인	2,000인 이상
		233	414	334	308	287	303	168	103	145
재무설문이 전달된 사업체수(B)	2,076	230	316	295	267	247	309	164	105	143
재무설문에 응답한 사업체수(C)	1,070	123	137	144	132	133	170	89	56	86
$\frac{B \times 100}{A}$	90.5	98.7	76.3	88.3	86.7	86.1	102.0	97.6	101.9	98.6
$\frac{C \times 100}{A}$	46.4	52.8	33.1	43.1	42.9	46.3	56.1	53.0	54.4	59.3
$\frac{C \times 100}{B}$	51.5	53.5	43.4	48.8	49.4	53.8	55.0	54.3	53.3	60.1

WERS 2004의 사업장 형태별 응답비율은 <표 6>과 같다. 다수사업장 중에 사업장단위로 재무조사표에 응답한 비율은 74.5%이며, 사업체가 아닌 기업단위로 응답한 비율은 23.5%이다. 단일사업장의 경우 사업체단위로 응답한 값과 기업단위로 응답한 값은 동일했다. 외국인 기업의 경우 대부분(93.3%) 사업장단위로 응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WERS 2004의 사업체단위 응답률은 80.7%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WPS 2005와 비교해 보면, WPS 2005가 WERS 2004에 비해 재무조사 자체의 응답률은 높았으나, WPS 2005는 다수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기업체단위로 응답하였고, WERS 2004는 주로 사업체단위로 응답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조사단위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다수사

〈표 6〉 WERS 2004의 사업장 형태별 응답단위 현황

(단위: 개, %)

	기 타	사업체단위로 응답	기업체단위로 응답	전 체
다수사업장	13 (1.7)	571 (74.8)	179 (23.5)	763 (100.0)
단일사업장	6 (2.2)	264 (95.3)	7 (2.5)	277 (100.0)
외국인 기업	1 (3.3)	28 (93.3)	1 (3.3)	30 (100.0)
전 체	20 (1.9)	863 (80.7)	187 (17.5)	1070 (100.0)

〈표 7〉 WERS 재무정보 추가 내용

가능한 한 설문지의 주소에 의해 지정된 사업체와 관련된 수치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업체에
만 해당하는 수치를 기입하기 어려울 경우 아래의 응답범위를 지정하여 주십시오.

응답범위(Scope of this return):

해당 사업체 정보만(This establishment only)

여러 사업체 정보(Other) ⇨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이 응답에 포함된 사업체수 :

귀 사업체가 차지하는 총매출액의 비중 : %

업장에서 사업체단위 재무정보를 많이 응답해준 WERS 2004의 경우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WERS 2004에서는 기업체단위로 재무조사를 한 경우, <표 7>과 같은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기업체단위의 수익과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WERS 2004의 재무설문은 기업체단위로 응답할 경우, 이 응답이 몇 개의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총매출액 중 해당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향후 WPS 2007에 WERS의 이러한 방법을 도입한다면 사업장단위의 값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WES(Workplace and Employee Survey): 캐나다²⁾

첫 번째, WES의 재무조사 방법은 재무 항목이 본 설문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설문 진행방법과 같다. WES 조사에서는—WPS 2005나 WERS 2004와는 달리—컴퓨터를 이용한 면대면 조사를 하기 전에, 전체 설문을 해당 사업체의 담당자에게 미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낸다. 이 때 미리 보낸 사용자 종이설문(Employer Survey)의 민감한 문항(재무,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는 필히 면대면 조사시 면접원과 함께 응답하도록 미리 보낸 종이설문에는 미리 응답하지 않게 한다. 즉, WES 재무조사는 재무 관련 변수들만 있는 종이설문을 주고, 나중에 우편이나 팩스로 답변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면접원이 면접하는 자리에서 즉시 응답을 받는 방식을 취한다.

2) WES는 캐나다의 사업체조사로서 사업체조사뿐 아니라 근로자조사도 함께 캐나다 통계청에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

〈표 8〉 WES의 재무조사 항목

섹션	재무항목	비 고
B. 보상 (Compensation)	총임금 (total gross payroll)	-
C. 훈련 (Training)	훈련비용 (training expenditure)	훈련비용에 포함된 항목에 대한 설문
F. 작업장 성과 (Workplace Performance)	총운영수입 (the gross operating revenue)	본 사업장만을 말하는지 확인하고 지난 1년 간의 변화율 측정
	총운영지출 (the gross operating expenditure)	본 사업장만을 말하는지 확인하고 지난 1년 간의 변화율 측정
I. 기술 사용 (Technology Use)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비용	가장 최근에 시행한 2가지에 대해 물음
	컴퓨터 통제 혹은 컴퓨터 보조기술 관련 비용	가장 최근에 시행한 2가지에 대해 물음
	그 외 중요한 다른 기술 및 기계 관 련 비용	가장 최근에 시행한 2가지에 대해 물음

WES의 재무관련 항목은 <표 8>과 같다. WES는 WPS 2005나 WERS 2004와 같이 재
무관련 변수를 별도의 한 섹션으로 모아 구성하지 않고, 각 섹션마다 관련된 재무항목
을 포함시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조사하는 항목 또한 총임금, 총훈련비, 운영수익 및
지출 등으로 한정되어 WPS 2005나 WERS 2004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략하다.

WES의 응답률은 <표 9>와 같다. WES의 설문구조는 WPS 2005 및 WERS 2004와는
달리 재무관련 정보들이 전체 설문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재무항목의 응답률을 별도로
알 수 없었으며, 대신에 사용자 설문의 응답률을 살펴보았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응
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80%에 상회하는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
다. 이는 WES가 WPS 2005와는 달리 조사에 대한 의무가 있고 조사에 대한 인식이 다르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9〉 WES 사용자 설문의 응답률

(단위 : %)

연 도	응답률
2000	90.8
2001	85.9
2002	84.0
2003	83.1
2004	81.7

주: 재무정보는 근로자 설문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표는 사용자 설문의 응답률임.

WES에서는 재무데이터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조사가 끝난 후 WES의 재무 변수들을 United Enterprise 조사, 연간 도소매업 조사 및 제조업 조사와 비교한다. WPS 2005 또한 조사 종료 후에 한국신용평가정보 데이터의 재무정보, 금융감독원 제출보고서 및 기업의 경영공시 자료와 개별 기업체 수준으로 일일이 비교하여 재무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Data Cleaning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비교대상 데이터 역시 모두 사업체가 아닌 기업체단위에 기반한 조사자료라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세 가지 자료의 값이 모두 같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이 중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WE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그들도 다수사업체의 경우, 사업체단위의 재무 항목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데, WES는 향후 사업체단위의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세무데이터와 같은 행정데이터를 재무정보 측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WPS 2007의 조사 및 구축과정에서 국가기관에서 조사하거나 사업체단위에서 신고하는 재무관련 자료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향후 자체 재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조사값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단위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구한다고해도 사업체명 공개에 따른 비밀유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3. 우리나라의 다른 사업체조사(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우리나라에는 통계청이 수행하는 사업체단위의 조사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비롯하여 여러 업종별 조사(광업제조업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등)가 존재한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199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며, 서비스업총조사는 통계청에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2005년 기준 서비스업총조사는 사업체와 업무담당부서의 응답부담과 조사부담 및 예산 등을 줄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병행 실시하고 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의 재무설문은 WPS 2005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사업체단위로 조사하는 재무항목과 기업체단위로 조사하는 재무항목이 구별되어 있다는 점이다. WPS 2005 설문지는 손익계산서 관련 항목과 대차대조표 관련 항목에 대한 조사단위(사업체/기업체)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즉,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일한 조사단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신뢰도 검증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감사보고서와 비교해 본 결과, 손익계산서 관련 항목의 경우는 사업

〈표 10〉 조사단위(사업체/기업체)별 조사항목 비교

사업체단위로 조사하는 재무 항목	기업체단위로 조사하는 재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영업수익/사업수익 ■ 영업비용/사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또는 출자금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결산 마감월(본사 조사) ■ 본사관할 사업체 현황(본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종사자 수, 연간급여액, 연간매출(사업수익), 주된 사업내용

주: 1) 연간 매출액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통해 매년 조사되고 있음.
 2) 각 산업별로 조사 계정은 상이함.

체단위로 응답하고, 대차대조표 관련 항목은 기업체단위로 응답한 사업장이 상당히 많았다. 이는 많은 사업체들이 별도로 자본금이나 자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이러한 정보는 사업체단위로 응답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의 경우에도 사업체단위와 기업체단위로 조사할 재무항목을 따로 구별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사업체단위로 정보를 얻기 힘든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사업체단위 정보를 얻기보다는 기업체단위로 응답을 받고 있다. 사업체단위로 조사하는 재무 항목과 기업체단위로 조사하는 재무 항목의 구분은 <표 10>과 같다. 즉, 최소한으로 매출액, 영업수익, 영업비용 등 사업체단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사업체단위 조사항목으로 설계하였고, 자본금, 유형 및 무형자산 등의 기업체단위로 판단될 수 있는 정보는 기업체단위 조사항목으로 설계되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무관련 항목을 그대로 질문하여 다소간의 응답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WPS 2005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의 값을 좀더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무 항목의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는 응답자에게 새롭게 계산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기존 개념과의 혼란을 초래하여 신뢰성 있는 응답을 받아내기 어렵게 만들었다.

한편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의 경우 재무제표와 조사표 항목의 연계표나 기타 부속명세표 및 조사표 항목의 연계표를 산업별로 각각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응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통해 조사표에 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응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Ⅲ. 맺음말

이상으로 국내외 사업체조사에 있어 재무정보가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조사되는지 살펴보았다. 사업체단위 조사에서 정확한 재무정보 값을 얻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실제 조사과정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단 WPS 2005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영국과 캐나다의 사업체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었다.

국내외의 여러 데이터들의 재무정보와 WPS 2005를 비교해 보면, WPS 2005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응답률 자체가 다른 데이터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제조원가명세서 및 당기 무형자산의 증가로 인식된 개발비를 포함시켜 실제 값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한국신용평가,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와 기업수준으로 비교하여 실제 값에 유사한 수치를 얻고자 노력한 점에서 그러하다.

반면에 WPS 2005에서는 총인건비,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법정복리비, 복리후생비(법정복리비 제외)에 손익계산서상의 계정뿐 아니라 제조원가명세서 및 당기 무형자산의 증가로 인식된 개발비(해당 무형자산상각비 상각전 금액)상의 금액이 포함됨에 따라 총인건비,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법정복리비, 복리후생비(법정복리비 제외)가 일반적인 재무조사의 조사결과에 비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판단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다수사업장의 경우, 사업체단위 재무조사 결과가 충실하게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 또한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재무정보 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단위의 정확성 및 일관성이라 할 수 있다. 재무정보의 조사값은 참값과 최대한 일치해야 하며, 다수사업장인 경우, 사업체단위의 재무정보가 수집되어야 다른 조사결과들과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무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설계 및 조사과정, 그리고 사후 데이터 클리닝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원칙과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살펴본 국내외 데이터들의 몇몇 사례들은 내년에 시행될 WPS 2007의 조사에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WPS 2005의 장·단점을 계승 발전하여 WPS 2007조사에서는 우선 다수사업체인 경우, 사업체단위의 재무정보를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기업단위 재무정보의 경우, 무리하게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한국신용평가의 데이터를 사업체패널조사에 결합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무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하며, 조사 및 응답의 부담과 클리닝 비용을 해결할 계획이다. **KLI**